

생시킬 것 같으며 부산에 최초의 스테이크가 서게 될 날도 임박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하는 자의 왕국입니다. 일하는 자는 앉아서 불평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는 자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늘 행복합니다. 일하는 자는 남이 이루어 놓은 일에 존경을 표시할 줄 알게 되며 이로서 겸손해집니다. 일하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부드럽게 기다릴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일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를 하나님의 품에 던지게 되고 결국은 승영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에 좇아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으로의 스테이크와 선교부를 주시며 와드와 지부를 주셨으며 온갖 복음의 프로그램을 주신 것입니다.

한국에 신전이 서게 되는 날은 우리가 팔을 뻗치면 잡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전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참 일꾼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시온의 스테이크로 채워지도록 희생과 봉사의 뜻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와 오늘 함께 있으나 하나님의 면전에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드립니다.

지역 소식

프로젝트 쉐어 장학금 전달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슐트레이크 지역 선교사들로 현재 미국 유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프로젝트 쉐어(Project Share)란 모임이 있다.

이들은 동양과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을 맛보며, 구세주께서 만인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뜻에서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개최하고 자신들이 받는 많은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부 한국 물론 학생들에게도 나누고자 모금을 하였다.

1978년 10월 27일 이들은 유타 대학교 강당(Special Event Center)에서 트르만지 매드슨 박사와 한국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를 연사로 초청하였다.

한 인상 장로는 "성리학과 추정철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 문화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였으며 이곳에서 모금된 3001불을 본인이 선교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 부산 선교부로 전달해 줄 것을 지청하였다.

현재 프로젝트 쉐어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부산 선교부 산하의 전 상희 자매, 나 영숙 자매, 배 영진 형제, 안 영배 형제, 오 태권 형제이다.

☆

☆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1979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를 감리자로 모시고 1979년 4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제 6와드에서 가졌다. 14일 토요일 6시 30분부터 가진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예수님, 세상의 구세주”라는 주제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제 1보좌인 김 차봉 형제는 “구세주는 우리 생애의 모범이시었음”이라는 주제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5일 일반 총회에는 약 1,5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김 창선 스테이크 부장은 자녀를 훌륭히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자녀 훈련과 교육은 영적, 정신적 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복지 프로그램과 금식 기금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당부하셨다. 제 2보좌인 이 남선 형제는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축복사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 공부를 열심히 할 것과 기도와 합당한 생활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셨다. 제 1보좌인 김 차봉 형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선함 속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끝으로 지역 대표이신 한 인상 장로는 “지금 우리는 준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대관장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시아에서 위대한 선교 사업이 전개되리라고 내다보시고 특히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신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또한 모든 가정이 개인 일지를 쓸 것을 권고하고 선교사 배출을 위한 노력과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위한 신전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광경

신간 서적 안내

복음원리

반양장 352 페이지

사진·그림 79매

찬송가 45곡 삽입

PBIC 0245KO

값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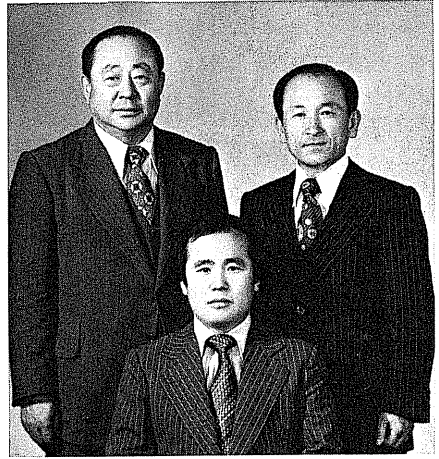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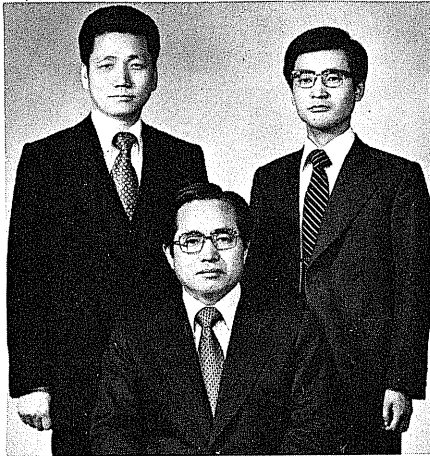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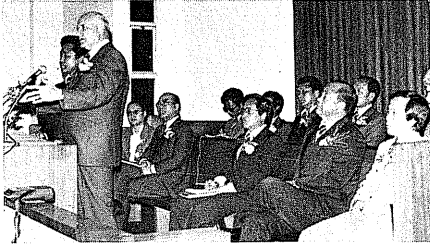
기초 복음학 학생과 새로운 회원을 위하여 마련된 본 교재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전세, 현세,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족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음 세상에서의 생활 등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 회원 필독의 개인 학습 지도서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1.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키우기 위하여
2.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3. 교회 모임에서 가르칠 공과를 준비하기 위하여
4.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5. 복음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6. 주체에 관한 경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교재는 한국 번역 출판부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대체 구좌 용지를 이용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서울 동 스테이크 탄생



상: 말씀하시는 헌터장로와 신권지도자 하: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상: 회원과 인사하는 헌터 장로 하: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단

1973년 3월 8일에 아시아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역사적인 첫 스테이크가 탄생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서울 스테이크는 1977년 5월 22일 서울 서 스테이크를 탄생시켰고 그후 발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 1979년 4월 18일 또 하나의 새로운 서울 동 스테이크를 탄생시켰다.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사도가 이 역사적인 모임을 감리하였으며 칠십인 제1정원회 요시히코 기쿠찌 장로와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가 그를 도왔다.

서울 스테이크에서 분리되어 조직된 서울 동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부장에 고 원용 형제가, 제1보좌에 최 동헌 형제가, 제2보좌에 조 병하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

다. 서울 동 스테이크의 총 회원수는 2153명이며, 과거 서울 스테이크 산하의 제1와드, 제5와드, 상계와드, 면목와드, 도봉지부, 태능지부, 춘천지부, 그리고 제1와드에서 분리된 청량와드가 이에 속한다.

한편 서울 동 스테이크를 탄생시킨 서울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부장에 최 옥환 형제가, 제1보좌에 남 영진 형제가, 제2보좌에 김 중열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서울 스테이크의 총 회원수는 2180명이며 서울 제3와드, 제4와드, 제8와드, 화양와드, 잠실와드, 영동지부, 성남지부, 원주지부가 이에 속한다.

새로 부름받은 양 스테이크 부장단과 스테이크 역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스테이크 역원 명단

스테이크부장 : 최 옥환
제 1 보좌 : 남 영진
제 2 보좌 : 김 종열
집행서기 : 정 기만
서기 : 서 정욱
보조서기 : 이 원준
보조서기 : 정 지영
축복사 : 박 순중
고등평의원 : 서 희철
김 기용
김 상호
김 용일
황 중섭
장 세문
김 해성
김 과영
박 관호
육 경남
김 낙형
정 기만
스테이크 선교부장 : 박 동규
상호부조회 회장 : 천 낙숙
초등협회 회장 : 김 정숙
주일학교 회장 : 김 낙형
아론신권 청남 회장 : 이 재욱
청녀 회장 : 장 성숙
독신성인 청년반 의장 : 김 옥권
부의장 : 김 해연
제 3 와드 감독 : 신 일동
제 4 와드 감독 : 김 영철
제 8 와드 감독 : 김 수영
잠실와드 감독 : 권 찬태
화양와드 감독 : 박 광식
영동지부장 : 배 영천
성남지부장 : 이 홍복
원주지부장 : 진 영수

서울 동 스테이크 역원 명단

스테이크 부장 : 고 원용
제 1 보좌 : 최 동헌
제 2 보좌 : 조 병하
집행서기 : 이 운행
서기 : 한 근조
보조 서기 : 최 상호
고등평의원 : 구 본동
손 완경
민 경욱
김 학현
이 영수
김 병희
이 중훈
손 승은
강 종태
박 희원

스테이크 선교부장 : 손 완경
상호부조회 회장 : 김 익자
초등협회 회장 : 조 말순
주일학교 회장 : 고 홍만
아론신권 청남 회장 : 강 경구
청녀 회장 : 김 경애
독신성인 청년반 의장 : 서 재균
부의장 : 김 애희

제 1 와드 감독 : 이 홍래
제 5 와드 감독 : 민 신희
청량와드 감독 : 조 성호
상계와드 감독 : 이 홍직
면목와드 감독 : 손 승주
도봉지부장 : 최 동일
태능지부장 : 김 영석
춘천지부장 : 조 만구